

특수학교 대폭 늘린다... 5년동안 1조6700억원 투입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22년까지 22개 이상 신설 · 교사도 확충 교육부, 장애 학생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년간 총 1조67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 1484명에서 2017년 8만1935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6만3154명)는 일반학교

에, 나머지 29% 가량(2만6199명)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돼 있다.

정부는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특수학교는 올해 174개교(1만325학급)에서 2022년 196개교(1만 1575학급)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사립 33개교)중 부속학교 8개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에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아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곳 이상 설립하기로 했다. 통합유치원 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은 1대1로 운영된다.

특수학교 확충에 따라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연구 대상자를 매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 배치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진로·고등·평생교육 지원도 강화

된다.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 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회를 2022년까지 17개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은 장애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이들에게 교육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면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국 읍면동장 새정부 국정과제 워크숍.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읍면동장 새정부 국정과제 워크숍'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 자치분권 로드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고객만족 우수부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이 내·외부 고객만족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상·하반기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지수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부서간 만족지수를 토대로 '2017년 내·외부 고객만족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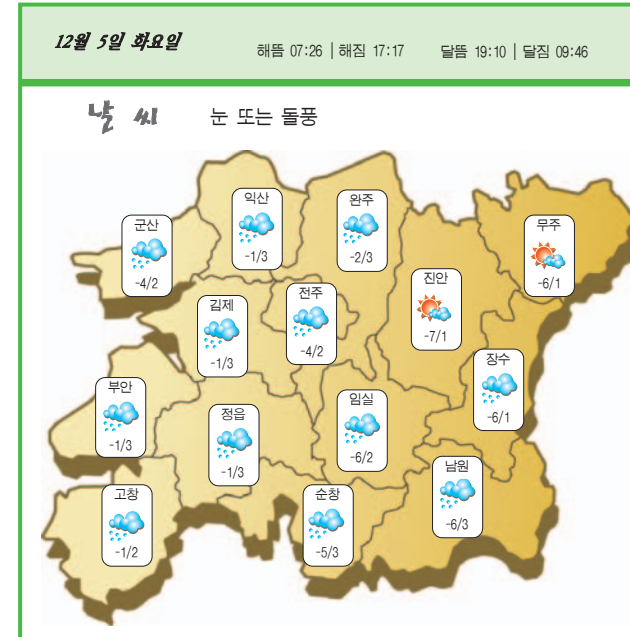
외부고객만족 우수부서 중 진료과에서는 소화기외과와 심장내과가, 진료과 외 부서에서는 38병동과 43병동이 선정됐다. 또 검사부서에서는 소화기내시경실이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내부 고객만족 우수부서는 최종 부서(외부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건강증진센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건강관리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선정됐다.

중간부서는 의무기록팀과 안센터 운영지원팀, 내부부서에서는 시설과와 진료행정과가 각각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직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활동을 유도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남원교육대상 시상... 공강남·이진선 교사 수상

전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이 4일 남원교육대상 시상식을 위해 남원교육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 대상자는 남원중학교 공강남 교사와 남원서진 여자고등학교 이진선 교사다.

교육장이 상패를, 수곡장학회(이사장 양해석)는 해외연수지원금 백만 원 증서를 대상자에게 각각 수여했다.

올해 시상자인 공강남 교사는 27년간 중학교에 봉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및 학교체육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교사로, 이진선 교사는 30여년간 남원 지역 고등학교에 봉직하면서 남원교육 특구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대입지원단 활동을 통한 입시 지원에 노력한 교사로.

/정해은 기자

“국가의 시대 가고 새 시대 온다”

김승수 전주시장, 지방분권·균형발전 해법 토론회서 역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선미·김경수·김영진·박남

춘·박주민·백재현·위성곤·유은혜·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회(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장과 정치인, 교수, 정치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시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시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또는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시민들의 변화를 읽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서울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혁신을·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